

북악산의 하루

서윤석(68)

목을 늘린 CC 카메라 속에
찬비가 찍힌다
광화문 앞을 걷어가는 우산도 찍힌다
당당히 행진하는 붉은 머리띠도 찍힌다
울부짖는 구호는 풍년가도 아닌데
끌려가는 꼬리에는 불고기 냄새
이끼 낀 덕수궁 담벽을 따라가는
비닐우산도 찍힌다

중국산 미세먼지로 숨통이 막히는 날
빌딩도 어지러워 흔들리는 날
또다시 짓밟히는 것은
빗방울들의 하루살이
두들겨야하는 것은
답답한 우리들의 가슴이다

찬비가 찍힌다
찬비를 받는 우산도
불을 켜 노란 불방망이도 찍힌다
비에 젖는 세종대왕의 용포도
충무공의 칼자루도 찍힌다
무거워진 북악산의 하루가 찍힌다